정읍 민속축제서도 '직지' 인기몰이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KBS가 공동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주관한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1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9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정읍에서 어강됴리 세계속으로 다롱디리』라는 주제로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정읍사의 고장이자 단풍도시인 정읍에서 개최됐다.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청소년민속예술제는 정부가 직접 주최하는 전통 민속분야의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행사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잊혀져 가는 우리 민속예술을 발굴·보존·계승하기 위해 1958년에 건국 10주년 기념행사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1959년, 1960년 두 해를 거른 뒤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어 반세기를 이어 왔다. 1999년부터 한국민속예술축제로 이름을 바꿨으며, 2005년까지 487개 종목의 각 지역 민속예술이 발굴·재현되어 소중한 우리 전통을 잇게 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이 가운데 '송파산대놀이' 등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직지' 홍보관에 학생 등 관람객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35개 종목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동래학춤' 등 56개 종목이 시·도 지정 문화재로 등재됐다. 또한 우리 고유의 민속예술과 그 혼을 우리 후손에게 전승하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민속예술제'가 1994년 처음 개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1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9월 28일~29일 양일간 각 시·도를 대표하는 16개 팀 780여명의 중·고교생들이 참가해 민속놀이, 민요, 농악, 무용, 민속극 등 5개 분야에서 경연을 펼쳤다.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9월 30일, 10월 1일 이틀 동안 16개 시·도와 이북 5도를 대표하는 21개팀 152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다. 단풍도시 정읍의 가을 밤을 불꽃으로 수놓은 2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경연대회와 함께 관객과 함께하는 체험행사로 금속활자 체험, 천연염색 전통연 만들기, 아로마비누 만들기, 단풍나무에 소원 글 달기, 떡메치기,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공동 주관으로 고인쇄체험관을 마련하여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을 홍보하고 탁본행사를 가졌다. 초·중·고생 등 방문객들은 이곳을 찾아 직지 탁본을 하며 우리나라 인쇄의 우수성에 감탄하는 한편 직지의 저자인 백운화상이 이곳 출신이라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흐뭇해 했다.

한편 5일간 열띤 민속경연을 벌인 제47회 민속예술축제에서 전북도의 고창오거리당산제가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우승기와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에는 강원도 용평서낭굿농악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 700만원을, 문화관광부장관상에는 경북 김천광천농악과 황해도 해주본영 대동굿이 공동으로 선정돼 상장과 상금 500만원씩을 획득했다. 또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수여되는 지도자상에는 최우수상 선정작 고창오거리당산제의 설태종씨가, 연기상에 인천광역시의 이순비씨와 황해도의 김정숙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8일과 29일 펼쳐진 제1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는 경기도 광주중앙고교의 광지원농악이 대통령상을 차지해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에 인천광역시 인천기계공고 범패와 작법무가, 문화관광부장관상에 경북도 아화중의 아화풍물이 선정됐다.

청소년부 개인부문 연기상에는 부산시 좌수영어방놀이의 선창을 맡은 김희정(부산동수영중 2년)양과 전북 남원농악 상쇄로 나선 성영옥(남원국악예술고 2년)양이 수상했다.